

인디고염료 수입의존도 90%

삼명물산 생산 중단 ... 수요감소로 경쟁력 상실

이화산업 계열사인 삼명물산이 올 5월부터 인디고염료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바지, 청색 남방, 날염 염색 등에 사용되는 인디고염료(Vat Blue 1)는 거의 전량 독일의 BASF, 영국의 ICI 등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량 중 일부를 삼명물산에서 생산해 왔으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잃고 수요도 감소해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염염료로 불리는 Vat염료는 인디고염료, 설파 Vat염료, 일반 Vat염료 등으로 분류되는데, 설파 Vat염료는 설파(황화)염료쪽에 더 가깝게 취급되기도 한다. 이 중 인디고 염료는 주로 청바지의 염색에 사용되고 있다.

국내 건염염료 수입현황 (단위 : M/T, 1,000달러)

구분	1990	1991	1992	1992(1~6)	1993(1~6)
중량	929	867	684	381	330
금액	26,030	24,772	19,593	11,119	9,001

인디고염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이상의 설비능력을 갖추어야 제품에 대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국내 수요가 연간 250~300톤에 불과한 실정이라 삼명물산이 인디고염료를 생산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BASF나 ICI 등 세계적 염료메이커들은 세계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또 청바지의 소비가 많은 미국, 일본 등으로의 인디고염료 수출은 저가의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바지에 대한 유행의 변화 또한 인디고염료의 수요를 감퇴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다. 즉, 인디고염료를 사용하는 블루진에서 설파염료를 사용하는 블랙진으로, 색이 짙은 청바지에서 색이 옅은 청바지 등으로 기호가 변함에 따라 인디고염료의 수요량도 변해 왔다.

전세계 인디고염료의 생산량은 1만5000톤, 소비량은 미국 5000톤, 아시아·아프리카 5000톤, 기타 2000톤 등 1만2000톤 정도로 추산된다.

인디고염료의 가격은 Local가격이 KG당 19달러에서 16달러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92년 국내 인디고염료시장은 약 500만달러 규모를 형성했으며, 이 중 BASF 60%, ICI 30%, 삼명물산 1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9/20>